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사회백신 프로젝트



복지현장에서 만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가족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오지랴(oz.lab)_유튜브에서 '오지랴'를 검색하세요.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을까요?**

참여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발열 검사와 소독을 마친 뒤 진행했으며, 사진 촬영 전후와 인터뷰 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oh_seonhee

우주 생일날 증조할아버지께서 주신 만 원짜리 5장이 어디 있는지 찾다 찾다 물어보니 그 돈을 저 상자에 넣은... 일전에 "우주는 엄마 아빠랑 집이 있어서 추운 겨울이 무섭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힘들거든. 그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법의 상자야♡"라고 했는데... 우주가 너무 예쁘다.♡

#사랑의열매 #마법의상자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자선 #선행
#마음나누기 #마음예쁜내아들
#언제나사랑해

realgalaxy_eun

사랑의열매에서 진행되는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펀딩에 참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어제 기부 참여 기념품이 도착했다.
<https://chest.or.kr/ca/crwdfund/P/initCrwdfundDetail.do>

#사랑의열매 #아동학대
#아동학대피해자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학대피해아동

morningpew

2시간에 걸친 우리 아이 기질과 그에 따른 대처법 등 알찬 양육 교육을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선물까지 주셨어요.^^♡ 백일 지난 아이가 있어서 직접 수령을 못 해 집까지 가져다주시는 특혜를 누렸네요.ㅠㅠ 좋은 강의, 알찬 선물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수업에도 참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감사합니다
#사랑의열매

mintyeon0113

자나님이 공유했습니다. 44분 전

● 체인지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

목표 454% 달성
7,279
/ 1,600

#따뜻하게체인지 #사랑의열매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63 2020. 11



발행인 예증석

발행일 2020년 11월 / 통권 16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_C-SDGs 연계 배분 사업 ⑩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14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4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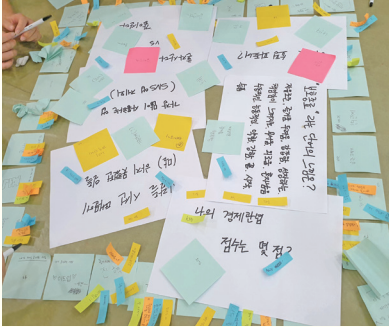


04 커버스토리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사회백신 프로젝트'"

08 특별 기획

임형주의 나눔 초대석 ①
세계적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만난
나눔의 명사,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



20 **와너 소사이어티**
제1회 와너 리더십 포럼 개최,
나눔 혁신을 일으킬
와너 리더들의 변신

2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영보자애원 생활인과 임직원,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모아

26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보호종료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 프로젝트

30 **착한기업**
하이모 가발에 활짝,
암 투병 환아에게 치유와 희망을

34 **국제 파트너십**
사랑의열매와 세계공동모금회의 만남

36 **착한동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으뜸', 세종

40 **일상 속 심포 찾기**
온라인 문학 축제 100% 즐기기

42 **나눔 이슈**
국민 MC 송해, 마스크 10만 장 기부

43 **함께펀딩**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44 **전국 지회 뉴스**

55 **이달의 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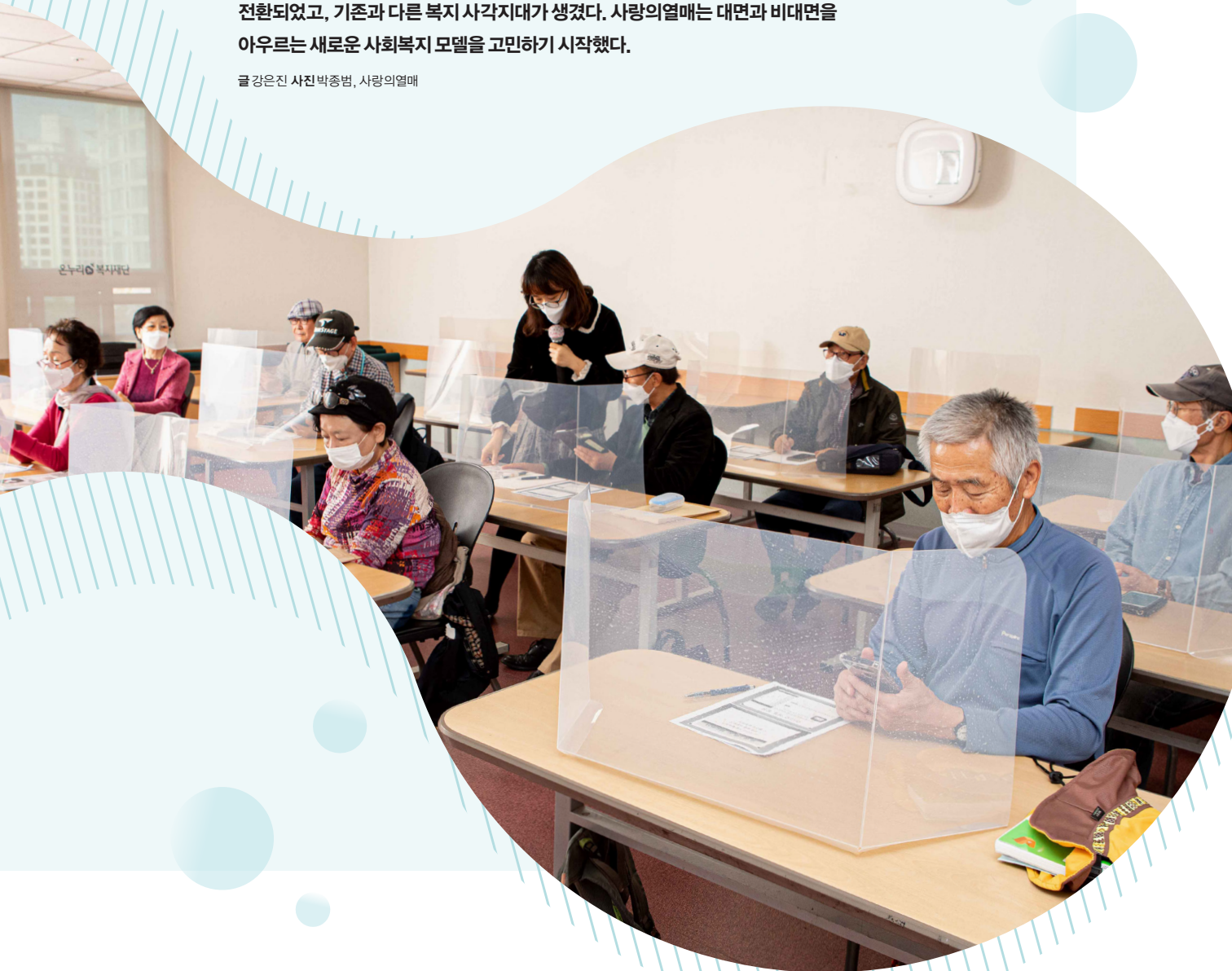
56 **독자 페이지**

코로나19 이후, 보다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준비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사회백신 프로젝트'

코로나19는 대면과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현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초래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는 속속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기존과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생겼다. 사랑의열매는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복지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글 강은진 사진 박종범, 사랑의열매



디지털 소외 막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디지털맛남의 광장'

시급한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온라인 개학, 재택근무, 드라이브 스루 픽업 등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일상은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한남동에 위치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시행으로 지난 2월부터 휴관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도 멈췄다. 하지만 복지관은 발 빠르게 유튜브 채널 '한남동 클래스'를 개설해 어학, 요가, 건강 강좌 등 교육부터 일상의 즐거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경우 디지털 사각지대에서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음을 알았다. 디지털 소외란 와이파이 미설치,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폰 조작 미숙 등 다양한 문제로 뉴 노멀 시대에 제공하는 다양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비단 취약 계층 어르신뿐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현장의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 디지털 격차 해소

복지관은 서울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난 9월부터 '디지털맛남의 광장'(이하 디지털맛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맛남은 와이파이 설치와 포켓 와이파이 대여 등 디지털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나



1



2



3

1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은 디지털 사각지대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2 디지털 코디네이터 양성 수업 모습 3 뉴 노멀 시대의 복지 서비스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중요해졌다.

생활지원사가 아니면 물어볼 곳조차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 어르신을 찾아가 직접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이다. 복지관 안 주영 팀장은 "가정방문을 하면 셋톱박스나 무제한 와이파이가 되는데도 어르신이 휴대폰과 연결 방법, 혹은 조작 방법을 몰라 이용을 못 하거나 스마트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본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았다"고 실례를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인 복지관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복지 전달 방식은 필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ART 2.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실제 현장에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사회복지 관계자 코멘트 속 코로나19 사회 재난 현장 상황

“돌봄 취약 아동은 코로나19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대비책이 없는 상태예요!”

• “공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고립으로 외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 “저소득층 아이나 장애 아동은 컴퓨터나 노트북 등이 없거나, 활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 “코로나 블루로 인해 자살 충동, 고용 불안 등 사회적 우울증이 심각해요.”

• “코로나19 때문에 야기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경영난으로 근로 장애인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워요.”

사랑의열매가 제안하는 복지 현장의 혁신 ‘사회백신 프로젝트’

사랑의열매, 위기 대응 모델 빠르게 찾아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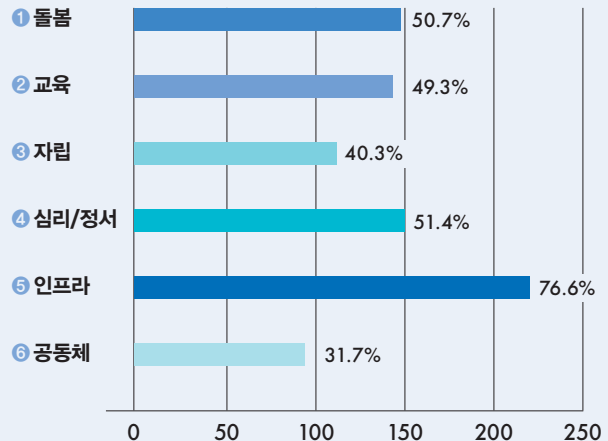
‘대면과 접촉’은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의 기반이자 근간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사업의 운영뿐 아니라 지자체 명령에 따라 복지 기관들이 휴관 조치되면서 사회복지 영역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고, 취약 계층의 피해는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기관과 이용자 모두 대비하지 않은 건 매한가지였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을 발

사회복지 현장에서 선택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눔기관 1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했다. 총 290명이 설문문에 참여했으며 답변을 기반으로 <사회백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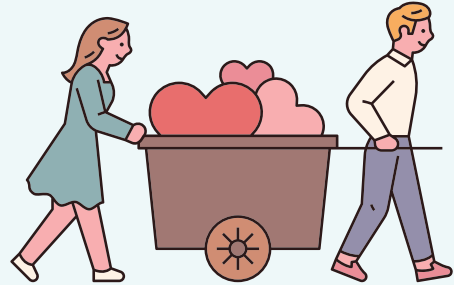
나눔기관 담당자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인프라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감 및 우울감 등 심리/정서 지원(51.4%), 온라인 교육 장비 등 교육(49.3%)이 뒤를 이었다.



빠르게 점검했다. 그리하여 복지 서비스 전환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백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복지 현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프로젝트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기존 복지 서비스 참여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난 新취약 계층을 지원한다. 또 향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멈추지 않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돌봄·건강·교육·고용을 주제로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사업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 사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비대면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한 대면(safetact) 활동을 함께 계획하길 권장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사업의 특성과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2년에서 5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최소 2년간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온라인 배분 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다. ❀



2021년 사랑의열매표 '백신'으로 준비하세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사회백신 프로젝트

접수 기간 2020년 10월 7일~1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배분 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코로나19와 관련한 돌봄, 건강, 교육,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과 단체 중 아래 조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곳

- 전국 단위 중간 지원 역할 수행이 가능한 단체
- 동일 광역시, 도에 속하는 3개 이상의 기관·단체 컨소시엄 (대표 기관이 신청)

배분 한도 2년 사업 최대 7억 원 / 3년, 4년, 5년 사업 최대 12억 원

사업 기간 2년간 (2021년 2월~2023년 1월)은 필수로 시행하되 사업 특성과 소요 기간을 고려해 사업 기간 선택

문의 사랑의열매 나눔사업본부 배분기획팀
(전화 02-6262-3266 이메일 aes@chest.or.kr)
자세한 사항은 사랑의열매 홈페이지(chest.or.kr) 참고



세계적 판페라 테너
임형주가 만난 나눔의 명사,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

“금융은 사람이다”라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려 노력해온 삶이었습니다”



세계적 팝페라 테너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임형주 로마 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가 나눔의 명사를 찾아 나선다. 치열한 삶 속에서 인간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살아온 명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임형주 교수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그 첫 번째 명사는 사회 공헌도 자산이라고 말하는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취임 후 콜센터부터 찾은 회장

임형주 '임형주의 나눔 초대석' 첫 번째 명사로 만나 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김지완 제가 명사도 아닌데요.(웃음) 하지만 진짜 명사이신 임형주 교수님과과의 만남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임형주 과찬의 말씀이십니다.(인사)

김지완 먼저 첫 번째 인터뷰 손님으로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평소에도 늘 존경해왔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사랑의열매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아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조금 긴장은 됩니다.(웃음) 임형주 교수님도 사랑의열매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주 네, 저도 10년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임형주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회장님을 직접 뵈니 왜 BNK금융그룹의 슬로건이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진정성 있게 배려해주시는 마음이 제게 잘 전해집니다.

김지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BNK그룹에 처음 취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콜센터였습니다.

금융도 따뜻해질 수 있다

임형주 아,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콜센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지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요즘은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바로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 직원 응대가 은행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콜센터 직원이 불친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센터 직원 대부분 비정규직인데 일도 힘든니까... 어떻게 고객한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콜센터를 찾아 일정 비율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죠.

임형주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이란 슬로건에 왜 회장님께서 콜센터 이야기를 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듣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민을 위해 금리도 낮춰주셔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지완 아, 아시는군요. 그런데 뜻깊게도... 임형주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BNK그룹을 찾아와주신 오늘 받았습시다. 아까 BNK저축은행 사장이 표창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하.

임형주 정말인가요? 손님인 제게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김지완 제가 취임한 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콜센터였다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금융은 구조적으로 돈 없는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금융의 모순이죠.

임형주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일정 이익을 포기하는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요.

김지완 부실 여신만 막으면 이익은 납니다. 서민 금융은 이자 적게 받아도 됩니다. BNK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금리를 낮춘 곳입니다. 너무 저희 회사 자랑만 했나요? 그런데 제가 가끔 합니다. 하하.(일동 웃음)

회장의 건강관리 비법은 23?

임형주 한평생 금융인으로, 기업가로 살아오시면서 술한 어려움도 많으셨을 줄 압니다.



김지완 ‘금융은 사람이다’라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려 노력한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신의 영역이 아닌 이상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고객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생이었지요.

임형주 “신의 영역이 아닌 이상”이란 말이 정말 목직하게 다가옵니다. 회장님의 치열했던 삶이 압축된 것처럼 말이지요. 회장님의 일상은 책임감 그 자체일 텐데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김지완 우리 BNK그룹 본사 건물이 23층인데요, 매일 아침 7시면 두 번씩 계단으로 오르내립니다. 뭐, 기분 좋으면 세 번도 합니다.

임형주 와, 본사 계단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빛이 참 좋습니다.

김지완 너무 새까맣죠.(웃음)

BNK 금융그룹

은행 BNK 경제은행 BNK 피탈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제 BNK 시스템



문화계에 BTS가 있다면 금융계엔 BNK가!

임형주 BNK그룹은 그동안 사랑의열매를 통해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기부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지완 부산은행이 430억 넘게 하고, 경남은행이 220억가량 하고... 이익금 대비 금융계에서는 가장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주 저는 회장님을 뵈기 전까지는 금융가라고 하면 차갑고 냉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계산에 정확하고 말이죠.

김지완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하하.(일동 웃음)

임형주 그런데 오늘 회장님을 인터뷰하면서 금융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음악가이다 보니 음악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김지완 듣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못 듣습니다. 하하.

임형주 제가 올해로 데뷔 23년 차입니다. 제가 부산에 공연이 있을 때, 항상 부산은행이 협찬이나 지원을 해주셔서 음악가로서 참 고맙습니다. 저도 알려진 기부나 봉사 외에도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중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레슨비를 대납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BNK그룹도 문화 마일리지라고 해서요, 직원들이 클래식이나 공연을 보면 점수화해서 여행을 보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계에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형주 문화 예술인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계에 BTS가 있다면 금융계엔 BNK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동 박수) BNK가 금융을 지배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낍니다.

김지완 예술인이라 그러신지, 덕담도 예술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형주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지완 그룹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느라 고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데, 내려와보니 지역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임형주 마지막까지 이 사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모습, 크나큰 감동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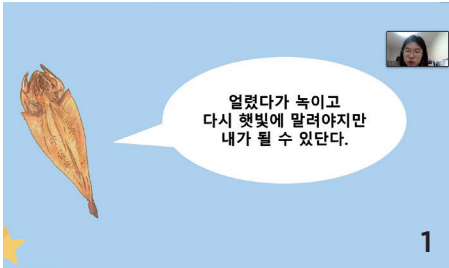
김지완 이렇게 부산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자꾸 틀려도 또 배우며 편견에 맞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이전과
다른 삶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사랑의열매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을 응원한다.

글 이선희 사진각각나눔기관 일러스트조성희





1, 2 대학생 멘토들이 진행하는 비대면 독서 교육 모습. 멘토들은 독서 지도 교수법, 대상자 이해 교육 등을 받은 후 1년간 독서 교육을 진행한다. 3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전교육을 받은 독서멘토단 4기 모습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

시중에 판매하는 책 중 느린 학습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 보니 점점 책을 멀리하고, 문해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단법인 피치마켓은 삼성전자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독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대학생 독서 멘토가 매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독서 교육을 진행 중이다. 독서 멘토가 담당 청소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운영하며,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며 독후 활동으로 이어져 문해력 향상을 돕는다. 또 발달장애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매거진 발간, 독서 교육 자료 공유 웹사이트 및 독서 도우미 애플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1 교육에 앞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적성 찾기 프로그램
 2 참여자들의 적성에 따라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산업기술사(펫 푸드 매니저) 자격증 취득에 도전한다.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사업

‘다독(dog)다독(dog)’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 자립을 위해 ‘나눔과꿈’ 사업의 일환으로 ‘다독(dog)다독(dog)’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 교육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강사가 한 달 동안 적성 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펫 카페나 동물병원 같은 보호시설에서 활동이 가능한 ‘반려동물관리사’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한 수제 간식 제조 등을 담당하는 ‘펫 푸드 매니저’ 양성 교육을 받고 있다.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자격시험에 응시해 취득하면 준전문가로서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위기 청소년의 학업 유지를 위한 꿈 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삼성전자의 ‘나눔과꿈’ 사업으로 선정돼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형 Wee센터에 입소한 위기 청소년들이 꿈과 목표에 따라 학교 복귀 또는 대안교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다지고, 동기부여를 위한 ‘꿈스위치ON’ 2 올해 꿈스위치ON에선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랩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적극적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졌다. 3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꿈·진로에 대한 흥미를 찾고 동기부여를 받는 ‘꿈스위치ON’, 2박 3일 동안 멘토와 집중적으로 꿈과 학교 복귀를 위한 로드맵을 형성하는 ‘꿈캠프’, 멘토링과 직업인 만남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가는 ‘꿈날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나가는 원동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1, 2 도배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강사님과 실습 중인 청소년들
3 도배 기술이 능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 중인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의 자립 지원 사업 '더블하트 또바기'

효광원은 6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입소하는 보호치료시설이다. 올해 삼성전자 후원,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입소한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시작했다.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이 도배 기술을 습득해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배 기술을 배우고 있다. 단순 기술 취득만으로 끝나지 않고, 직업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꿈·自·樂 - 스스로 만드는 즐거운 꿈 시즌 3

평화사회복지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여성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취업) 지원 사업을 3년째 해오고 있다. 창업 교육 전문 기관과의 MOU를 통해 전문 이론과 마케팅 실무를 배울 수 있다.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필요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차 연도에는 10명 중 6명이, 2차 연도에는 14명 중 6명이 창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한 노년기 삶의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최근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는 TTI(티티아이)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노년기 삶의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습득한 재능은 지역사회에 나누는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



2

1 쇼핑몰 구축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촬영하는 모습
2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필요한 현장 중심 교육 진행한다. 3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캐리커처 클래스' 강의를 제공한다.



3

제1회 W아너 리더십 포럼 개최

나눔 혁신을 일으킬 W아너 리더들의 변신

지난 9월 24일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1회 W아너 리더십 포럼'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제1회 W아너 리더십 포럼에 참석한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W아너 총리더 이민재 (주)엠스 대표, 오한숙희 (사)누구나 이사장, W아너 중앙리더 송주은 BT&I 대표, 사랑의열매 신혜영 자원개발본부장

‘모임’에서 ‘포럼’으로 한 단계 성장

W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중 여성 회원을 이르는 말이다. 여성이 이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W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을 발족했으며, 각 지회별 대표인 W아너 소사이어티 리더(이하 W아너 리더)들을 선출했다. 이후 매년 ‘W아너 리더 모임’을 개최해 나눔 이슈와 여성 문제 현황 등을 공유하고, 클럽 운영을 논의해왔다. 올해부터 W아너 회원들이 지닌 역량과 자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W아너 리더십 포럼’으로 바꾸어 개최한다. 앞으로 W아너 리더십 포럼은 나눔 리더십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W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연사들이 강연을 진행한다.



1 강연을 맡은 여성학자 오한숙희(사)누구나 이사장

2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 W아너 리더십 포럼



이번 ‘세상을 바꾸는 W리더십’에서는 여성학자 오한숙희(사)누구나 이사장이 연사로 나서 ‘여성은 태양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 및 사회복지 현장과 교류하고, 회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W아너 회원 간 정기 교류와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매불망 500호 주인공 탄생 임박

비록 한자리에 다 모일 수는 없었지만, 각 지회별 W아너 리더들이 온라인상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이번 리더십 포럼에선 W아너 소사이어티 활성화를 위한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2020년 9월 기준 W아너 회원은 491명으로, 500호 회원 탄생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251명에 불과하던 여성 아너가 W아너 클럽 발족을 계기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 의미 있는 결실을 보게 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500호라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회원 제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여성 단체들과 함께하는 W아너 공동 캠페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W아너 리더십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부자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W아너 중앙리더 송주은 BT&I 대표

“앞으로 K-나눔을 이끄는 건 여성이 아닐까요”

송주은(경애) 대표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하 아너)이 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사랑의열매에 올 때면 빨간색 재킷을 입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아너 가입식 때 입을 옷을 그대로 입었다고.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 변치 않는 건 그의 옷차림만이 아니었다. 나눔을 향한 마음 역시 10년 전 그때와 똑같았다. 글이선희 사진이승재, 사랑의열매

생일 나눔으로 시작한 여성 아너 1호

송주은 대표는 중앙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최초의 여성이다. 2010년은 송 대표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해다. 그가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을 맞았고,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그해를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신문에 실린 아너 기사를 보고 문득 여성 아너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성 회원이 없다는 걸 알고는 그럼 내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제 생일 날짜를 조합한 기부금 전달을 시작으로 남편, 아이들 생일까지 차례로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아너가 되었더라고요.” 사랑의열매조차도 ‘아너’라는 명칭이 생소하던 시절이니 일반인은 더욱 낯설어했을 터. 그럼에도 송 대표는 과감히 여성 아너의 길로 나섰다.

눈에 띄는 성장 그 이후

송 대표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해안을 발휘해

사랑의열매에 여성만의 아너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2017년에 ‘W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발족했다.

“W아너 회원들에게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원, 봉사 활동 등 나눔 활동을 할 때 특히 그런 강점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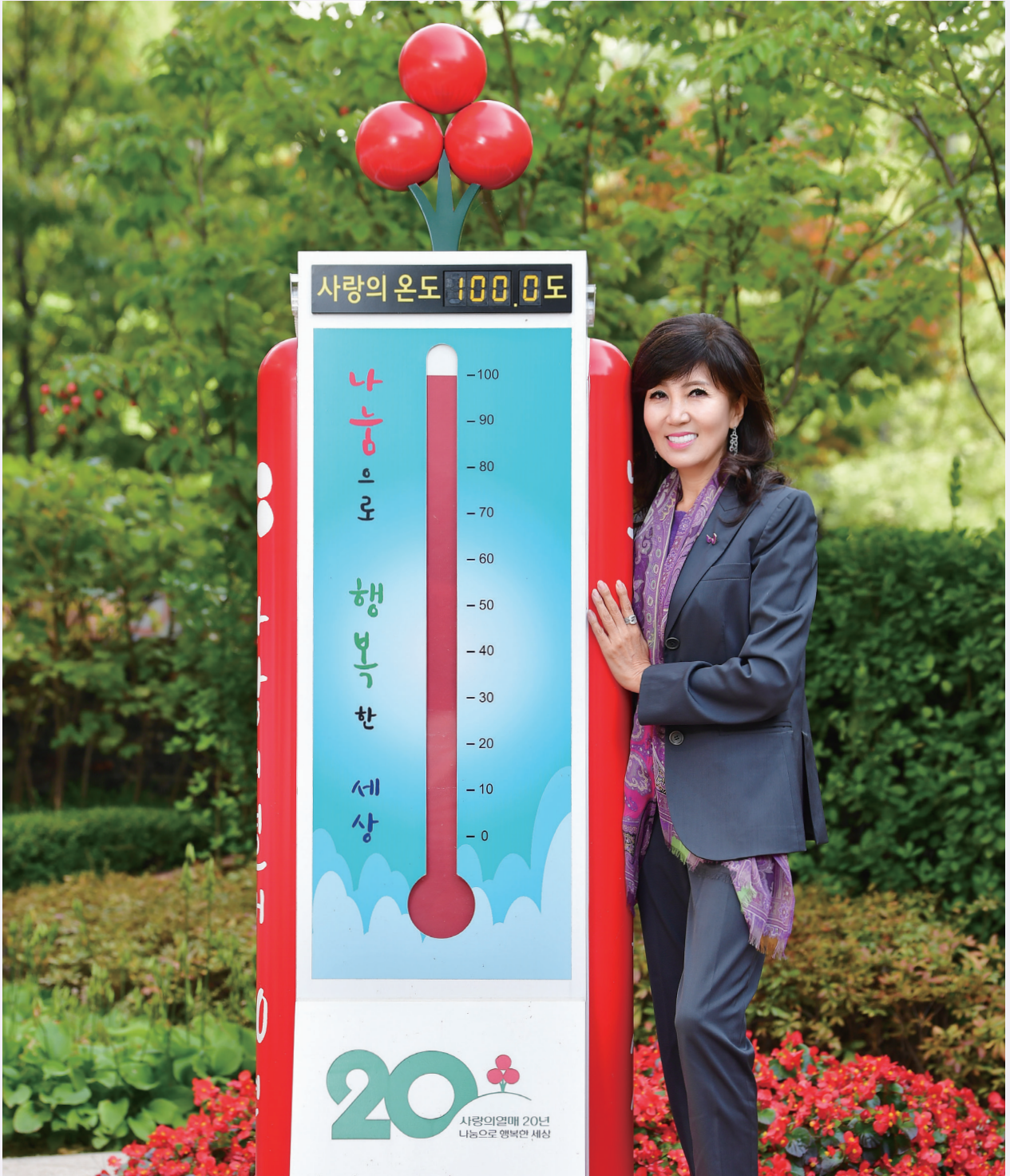
송 대표에서 시작한 여성 아너는 이제 500호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클럽 발족 3년 만에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지만, 그는 여성 아너의 잠재성을 알기에 세상에 더욱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요새 K-POP, K-방역 등 전 세계에서 한류 바람이 거세잖아요. 여성 기부자들을 주축으로 결성한 모임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우리만의 문화거든요. 앞으로 W아너가 꾸준히 발전한다면 K-나눔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의 대표적 기부 브랜드가 되었고, 유일한 여성 아너이던 송 대표에게 함께하는 500명에 가까운 W아너가 생겼다. 근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다. 10년 뒤 송 대표와 W아너들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2010년 아너 가입식 당시 사진



영보자애원 생활인과 임직원,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모아

“나눔이라는 소중한 기회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조금 특별한 나눔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과
나눔의 기회에 동참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순 없다. 당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금을 모은 영보자애원 사람들 애기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뉴스 보며 의견 모은 생활인들

여성 노숙인 요양 시설인 영보자애원 생활인들과 임직원들이 성금 200만여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수해 등으로 모두가 힘들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다.

“영보자애원에는 300분 정도가 생활하고 계시는데… 구역별로 자치 모임이 있어요. 자치 모임을 통해 건의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한 달에 한 번 방장들이 의견을 모으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의 뉴스를 보시고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을 먼저 주셨어요.”

영보자애원 김지연 사무국장은 이번 기부가 생활인들의 강력한 의사로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시설의 생활인은 응당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 이들의 나눔이 조금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김지연 사무국장은 조금도 특별할 것 없다고 선을 긋는다.

나눔 통해 자신감도 회복해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이 나눔에 동참하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에게 빵을 구워 보내기도 했고, 수재 의연금도 모아서 냈다.

“십수 년 전에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조차 조심스러웠죠.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고 말이죠.”

김지연 사무국장은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이 누구보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또 이 같은 기부를 통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에서 스스로를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금도 특별하지 않아요

성금을 모은 스토리도 다양하다. 제빵 기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카페에서 일하고 받은 적은 급여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를 저축해 모은 돈까지, 그야말로 십시일반이다. 임직원들도 이 같은 생활인들의 정성에 감동해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생활인 분들도 보통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나눔이 화제가 될 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나눔이에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통의 사람입니다.”

김지연 사무국장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나눔의 기쁨은 슬픔을 잊게 하는 치료제인 것 같으며, 생활인들의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보호종료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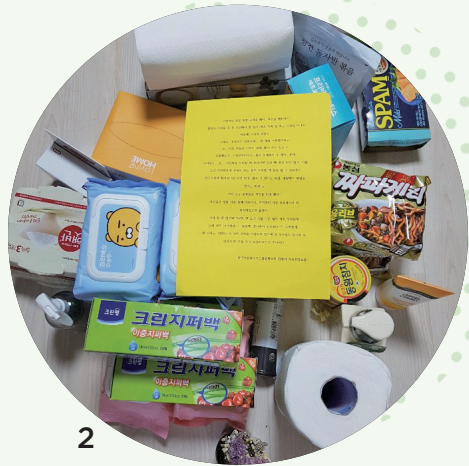
힘들 때 ‘어깨동무’ 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 좋다

완전한 독립은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만 18세라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독립은 크나큰 숙제이며,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의
‘어깨동무’ 프로젝트는 어른 역할을 자처하며,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다.

글 강보라 사진 제공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우리나라 아동복지 지원 체계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아동 양육 시설과 가정 위탁, 공동생활 가정에 배치해 만 18세까지 보호하고 있다. 공동생활 가정은 5~7명의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대형 시설과 달리 가정처럼 포근함과 편안함을 느끼며 지낼 수 있는 것이 그룹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문제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자립 전담 요원이 없다는 것. 자립 전담 요원은 보호종료 청소년이 퇴소한 이후 5년 이내의 성인기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수용 인원이 적은 그룹홈에서는 자립 전담 요원의 배치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그룹홈의 전담 요원 지원 사업인 '어깨동무'를 제안한 것이다. 보호종료 청소년은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에 나서 주거, 진학, 취업 등 자립에 대한 여러 선택을 동시에 해야 한다.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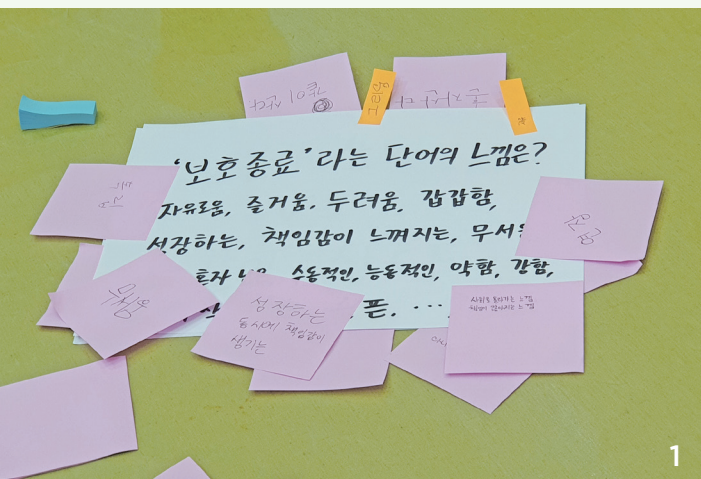
2

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홈리스, 실업, 미혼모, 범죄 연루 등 다양한 문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사랑의열매 역시 그룹홈 보호종료 청소년의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해 '어깨동무'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립 전담 요원의 어깨동무로 이들의 인생이 백팔십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어깨동무가 알려주는 첫 월급 관리

〈사례 1〉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게임만 했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게임 아이템으로 60만 원을 질렀어요. 월급이 120만 원인데, 월세 40만 원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례 1처럼 처음 받는 월급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립 전담 요원은 월급 관리 조언부터 돈 관련한 문제까지 해결하며, 이들의 건강한 재무 독립을 돕는다. 접촉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 처할 때도 지원 단체를 찾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대다수의 보호종료 청소년은 경



1

1 그룹홈 퇴소 전 '자립 준비 아동 캠프'를 통해 자립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다.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심리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2 어깨동무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매달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제적 기반이 취약해 작은 사고에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지할 가족이 없으니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자립 전담 요원에게 요청하고 문의하면서 상황 대처 능력과 관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1 미디어 교육 '길동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길을 열어두었다. 사진은 직접 영상 제작에 나선 그룹홍 청소년들 2 주기적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자립 전담 요원을 배출하고 있다.

어깨동무는 '길동무'로 너의 꿈을 응원해

〈사례 2〉 시설장님께서서는 직업도 공부나 기술 쪽 얘기만 하시는데, 뮤지컬을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진로에 대해 상담하거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보호종료 청소년은 자립 시 시설장과의 갈등, 세대 차이 등으로 말하지 못하는 진로 고민을 자립 전담 요원에게 털어놓거나 관련 지원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다. 연령대가 높은 그룹홍 시설장과 달리 자립 전담 요원은 형이나 누나 세대로 말이 통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깨동무는 이를 위해 퇴소 전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길동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1차 연도엔 선호 분야 조사를 통해 '미디어 교육'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MBC를 견학해 현직 작가·PD·성우 등을 초빙해 소통형 진로 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바탕으로 3분 영화, 광고, 다큐, 뮤비 등을 직접 제작하고 발표하며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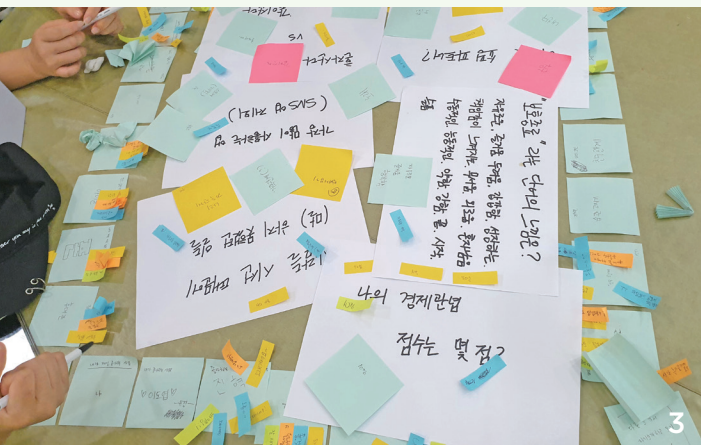
성인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하다

최근 공개 성인 입양을 진행한 배우 박시은 씨는 “마흔이 되어서도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조언을 구할 어른은 필요하다. 만 18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어깨동무’가 꼭 필요한 이유다. 의식주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어깨동무 자립 전담 요원은 심리적 안식처가 된다.

어깨동무의 성공적 시범 사업 덕분에 우리 사회도 그룹홈 자립 전담 요원 배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서울시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2020년부터 자립 전담 요원 2인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부터 채용 및 근무)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

3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이후의 진로와 주거, 경제적 대비 등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4 어깨동무의 생필품에는 일부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됐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3



4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현미 팀장

처음에는 보호종료 청소년과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시설 아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생활의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면서 어깨동무에 연락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만나는 어른이 부모는 아니지만, 나를 생각해주고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어깨동무가 있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이 정글 같은 사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어깨동무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하이모 가발에 활짝, 암 투병 환아에게 치유와 희망을

우리나라 가발 산업의 대표 기업 하이모는 2000년부터 가발 지원을 비롯한 '러브헤어(Love Hair)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모가 전하는 건 가발만이 아니다. 하이모의 러브헤어 캠페인은 '사랑 모발'과 '사랑해'라는 뜻으로, 모발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더 큰 나눔의 의미를 함께 전하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하이모



우리나라 가발의 대표 기업 하이모와 사랑의열매의 업무 제휴 협약 모습. 하이모 홍정은 부사장(가운데)은 "보다 많은 이웃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업으로 기부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며 이웃사랑에 앞장서는 하이모는 ‘착한기업’의 표본이다. 하이모 직영점은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로 운영하고, 직원들은 급여에서 약정 기부금을 이체하는 ‘착한일터’에 가입해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고객이 하이모 제품을 구매하기만 해도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가발 산업의 역사를 이끌어온 대표 기업으로서 병마나 사고로 머리카락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발을 지원하고 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만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활동으로, 대체 불가능한 하이모만의 사회 공헌 영역이기에 더욱 빛난다.

머리카락이 빠져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하이모는 2000년부터 백혈병이나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항암 환아에게 매달 무료 가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머리카락이 빠져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연을 접하고 펼쳐온 사회 공헌 활동이다. 항암 치료하는 어른도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아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됐다. 휴대용 3차원(3D) 스캐너를 이용해 정확한 치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이동하기 불편한 환자를 위해 출장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가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한다. 항암 환자뿐만이 아니다. 하이모는 루푸스, 두피 화상, 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상시 30% 할인한 가격에 가발을 제공하고 있다. 가임기 짧은

1 병마와 사고로 머리카락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하이모는 ‘하이모 러브헤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 하이모 러브헤어 캠페인을 통해 1,400여 명의 환아가 가발을 기증받고 자신감을 찾았다.

여성을 중심으로 발병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는 80~90%의 환자에게서 뺨의 발진과 원판성 발진, 구강 궤양 등이 나타나는데, 두피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탈모가 동반된다. 질병 자체 외에도 젊은 나이에 외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하이모가 작은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화상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내일을 응원해 캠페인

이 밖에도 하이모의 배려는 넓고 깊다. 두피 화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서도 손길을 내미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 양은 예기치 않은 화재 사고로 전신 40%에 화상을 입고 안면부 90% 이상이 변형돼 안면장애 및 지체장애 2급을 진단받았다. 다행히 상처는 대부분 완치됐지만, A 양은 화상을 입

하이모 직영점은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로 운영하고 있다.





은 두피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며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하이모는 무료 가발을 지원하고 SNS를 통해 ‘하이모 러브헤어 캠페인 #내일을 응원해’를 기획해 화재 사고 피해자를 격려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었다. 하이모 관계자는 “가발을 미용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지 못한 많은 곳에 가발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며 “하이모가 가장 잘하는 가발 제작을 통해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400여 명의 환아가 하이모를 통해 가발을 기증받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해 더욱 커지는 사랑

하이모의 이웃사랑은 가장 어려운 지역을 향한다. 대구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집중 확산되던 3월, 하이모는 총 1억 1,5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지난겨울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푸드뱅크·마켓에 하이모 건강식품 브랜드인 하이생의 ‘모락모락 블랙’ 약 1,500박스도 전달했다. 기증품은 평소 건강관리에 취약한 결식 아동,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 내 어려운 계층에 전달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이 됐다. 하이모의 러브헤어 캠페인은 마음과 마음이 모여 이웃을 사랑하는 러브 네이버(love neighbor)로 커지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하이모의 역량과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이다. 진심을 담은 적재적소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도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음을 잇는 하이모의 러브헤어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

- 1 하이모는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과 두피 화상 환우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 2 하이모가 강남푸드뱅크·마켓에 전달한 건강식품은 평소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외 계층에 전달됐다.



❶ 사랑의열매와 세계공동모금회(UWW)의 만남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사랑의열매는 설립 초기인 1999년에 세계공동모금회(당시 United Way Worldwide, UWW)의 전신인 United Way International, UWI)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후 2010년 공식적 글로벌 파트너십(이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교류해오던 두 기관은 이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신의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

클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세계공동모금회(UWW)

세계공동모금회(UWW)와 맞잡은 손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원조 공여국이지만, 한때는 원조를 받던 입장이었다.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만의 복지 체계를 발전시켜 자립을 이뤄낸 것이다. 사랑의열매 또한 우리나라 자원이 우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선순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내 나눔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가 추구하는 모토, '시민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donate)하고 지지(advocate)하며 봉사(volunteer)하라'는 것이 사랑의열매 나눔 생태계 확장과 맞닿아 설립 초기부터 파트너십을 통한 인적·지식 교류를 가능케 했다. 설립 초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랑의열매는 현재 '아태교육센터'를 통해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며 전 세계 공동모금회의 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 공동모금회와 공생

세계공동모금회(UWW)는 전 세계 40개국 1,800여 곳에 지회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글로벌 비영리 네트워크다. 따라서 세계공동모금회(UWW)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공동모금회와 긴밀하게 연결됨을 의미한다. 국적과 인종은 달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 모금'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동모금회와



2010년 9월 아태교육센터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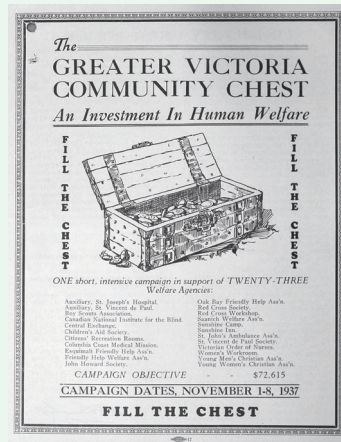
프로젝트를 연계하거나, 트렌드 데이터를 공유·분석, 기부자 교류 등 돈독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세계공동모금회(UWW)의 중요한 네트워크 중 하나로 성장한 사랑의열매는 2010년에 아태교육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지식 공유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글로벌 교육 플랫폼 제공과 아너 소사이터티, 착한가게, 기업 기부 등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아태 지역 민간 복지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 모금’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모금해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배분·지원한다는 뜻이다. 국가마다 자국의 문화와 민족성을 반영한 모금 모델을 만들어 왔다.

사랑의열매는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기반으로 설립한 단체다. 그렇기에 정부, 지자체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 자생적 민간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지닌 미국 공동모금회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기부 제도와 청교도 정신의 영향으로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대공황 시대에 실업자가 된 동료를 위해 급여 일부를 모금회에 전달한 것이 오늘날 대표적 모금 프로그램인 ‘직장인 모금 캠페인’이다. 일본 공동모금회는 지리적 상황으로 재난 지원 캠페인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

이렇듯 각 나라마다 자생적인 모금과 배분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전 세계 공동 모금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공동모금회들이 지닌 장점을 결합하고 융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다. 미래 기술과 혁신 속도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오늘날, 나눔 생태계의 글로벌 선두 주자의 네트워크 연대와 고민의 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 구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



미국 공동모금회 포스터

미국 공동모금회는 공동 모금 제도가 탄생한 곳으로, 1937년 캠페인 포스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포스터에 있는 Community Chest의 뜻은 궤짝, 쌀통, 공동 모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공동모금회 포스터

지역사회 기반의 봉사단 참여와 커뮤니티 베이스 캠페인 진행 등이 표현되어 있다.



미국공동모금회의 'LIVE UNITED' 캠페인 사진



함께 걸어온 길

사랑의열매 설립 초기부터 세계공동모금회(UWW)는 수석고문 파견 자문은 물론, 직원 연수를 통한 지식 교류 등 도움을 주었다. 두 기관은 하나의 주제로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하는 새로운 플랫폼(LA 모금 캠페인)을 시도했고, 국제 재난 발생 시 역량 있는 배분 협력 기관을 즉각 연계해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외에도 초고액 기부자 모임인 UWW(세계공동모금회) 라운드 테이블에 기부자를 초청하고,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개인·법인 기부자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

포스터로 보는 전 세계 공동모금회 모금 모델

전 세계 공동모금회는 파트너십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민족성을 반영한 모델로 발전해왔다. 각 공동모금회 포스터에도 그런 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으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막내'다. 세종 시민 평균 나이는 36.9세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한 30대로 기록될 만큼 젊은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을 만들며, 이름처럼 '세상의 으뜸'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역동적 도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세종특별자치시청 참고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시의 대표적 야경 명소인 한두리교와 첫마을

마음이 이끌리는 세종의 대표 관광지



도심 속 자연 쉼터 세종호수공원

도심 속 한가운데에 자리한 국내 최대의 인공 호수로, 축구장 62개를 합친 광활한 규모를 자랑한다. 공원은 인공 섬으로 조성한 5개 테마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자 좋아하는 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경이 아름다워 밤에도 찾는 시민이 많은 곳이다.

주소 세종시 연기면 다솜로 216 문의 044-301-3921~6



반달곰이사는 수목원 베어트리파크

10만여 평 대지에 1,000여 종, 40만여 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를 관람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인기가 높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비단잉어, 꽃사슴, 그리고 반달곰이 살기 때문. 이뿐 아니라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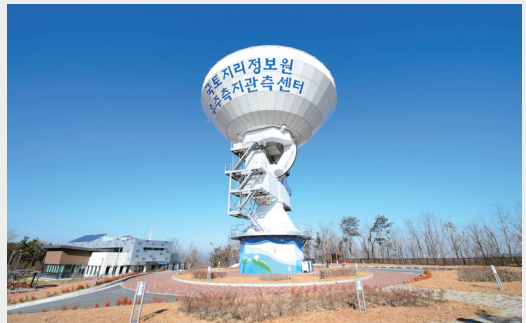
주소 세종시 전동면 신승로 217 문의 044-866-7766



자연을 품은 고즈넉한 천년 고찰 비암사

확실한 연혁은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라는 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이곳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여유롭고 한적하게 산사의 풍경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800년 넘는 느티나무와 비암사 가는 길에 있는 '도깨비 도로'까지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다.

주소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문의 044-863-0230



하늘을 재고 땅을 헤아리는 우주측지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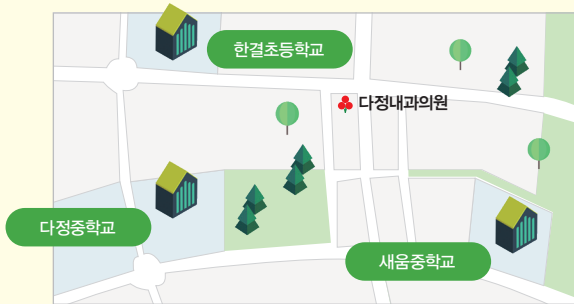
정밀 우주 측지 기술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관측센터다. 우주 측지 기술은 GPS보다 더 정확한 좌표값을 제공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세계에서 열여섯 번째,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구축했다. 일반인을 위한 홍보관이 있어 생소한 우주 측지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주소 세종시 연기면 월산공단로 276-7 문의 044-860-4007

세종시 첫 착한아파트 탄생

새뜸마을봉사단

올해 2월 새뜸마을봉사단이 세종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하면서 세종시 첫 번째 '착한아파트'가 되었다. 새뜸마을봉사단은 세종시 새뜸마을 4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청소년이 주축을 이룬 봉사 단체다. 2017년에도 스스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단체 활동에 나선 것은 2019년부터다. '주민어울림 지원' 사업의 일환인 분리수거에 대한 작은 실험을 시작으로 11명이 모여 봉사단을 결성했다. 가덕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 정화와 불법 현수막 제거 등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매달 나눔까지 실천하는 새뜸마을봉사단의 선한 마음이야말로 '착한 세종시'를 만드는 숨은 주역이 아닐까. ❀





상호명	연락처
T마트 세종새롬점	044-862-8973
다정내과의원	0507-1326-1911
바른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044-998-2080
새롬동주민자치위원회	044-862-6947
새롬언어발달센터	044-998-1465
상상낙지	044-863-6317
용인대새롬태권도	044-867-8365

MINI INTERVIEW



새뜸마을봉사단 이희덕 단장

“작년 9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체 활성화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출을 고민한 끝에 봉사단원들의 만장일치로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첫 착한아파트가 되었다는 소식에 봉사단 내부는 물론, 단지 내 이웃들도 기뻐해주셔서 가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눔이 선순환되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저희의 나눔이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책을 읽기만 하세요?

온라인 문학 축제 100% 즐기기

가을은 독서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요즘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특히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그 어느 때보다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글 이선희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문학을 더 가깝게 '문학주간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문학주간'이 지난 9월 26일부터 펼쳐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한다. 문학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문학은 더 가깝게'로 주제를 정했다. 아울러 주제에 맞게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작가 무대(스테이지)'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46회나 진행한다.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생중계·녹화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편성되고 있다. 문학주간은 11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11월 상세 일정은 문학주간 블로그 (blog.naver.com/arkomunhak)에서 확인 가능



문학주간 11월 추천 프로그램

한국문학 퀴즈쇼-가나다마켓 소설 창작 동인 '어' 일동은 젊은 층에 인기 많은 한 예능 프로그램(《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의 형식을 빌려 문학 퀴즈쇼를 진행한다. 젊은 독자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 참여 작가 안준원(소설가), 임국영(소설가), 이현석(소설가), 최유안(소설가), 조진주(소설가), 이원석(소설가)

모든 트랙은 재구성의 덱(Deck)으로부터 '소설'과 '전자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다. 소설집 <재구성>의 파편적인 문장들과 DJ가 선별하고 편곡한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어우러져 기존 낭독회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 참여 작가 민병훈(소설가), 민병철(DJ, 작곡가), 이설빈(시인, 진행자)

국내 최대 국제 문학 축제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서울국제작가축제'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국내 독자들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문학번역원과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올해는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해외 11개국 11명의 작가와 한국 작가 14명까지 총 25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한다. '개·폐막 강연'을 비롯해 '작가들의 수다', '작가, 마주 보다', '소설, 시 듣는 시간' 등 5개 섹션, 총 16회의 공식 행사가 열린다.

- 해외 각국 작가들과의 만남을 실시간 중계하고, 사전 영상으로 제작해 서울국제작가축제 공식 웹사이트(<http://www.siwf.or.kr>)를 통해 공개한다.



서울국제작가축제 주요 프로그램

개막 강연 '내일을 쓰다' • 11월 2일 오후 7시 • 황석영 작가의 강연 및 대담

작가들의 수다 • 11월 3~7일 매일 오후 2시 • 국내외 작가들 간의 사회 이슈에 관한 토론
● 참여 작가 심윤경&루이스 에두아르도 가르시아, 황인숙&황인찬&제프리 양 등

작가, 마주 보다 • 11월 3~7일 매일 오후 7시 • 국내 1인, 해외 1인 작가 간 대담
● 참여 작가 박연준&이만 메르살, 유용주&올리비에 게즈 등

폐막 강연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 11월 8일 오후 2시 • 정세랑 작가의 폐막 강연 및 파올로 조르다노 작가와의 대담





이 시대 진정한 어른이 건네는 따뜻한 응원

국민 MC 송해, 마스크 10만 장 기부

일요일마다 <전국노래자랑>으로 시청자와 만나는 국민 MC 송해 씨가 이번에는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지난 10월 16일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과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송해 씨의 마스크 기부 전달식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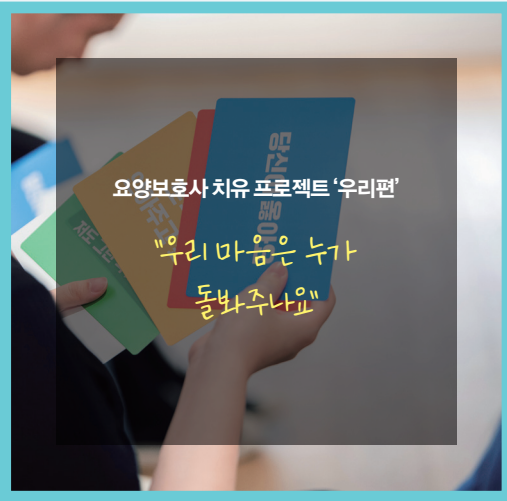
송해 씨는 전달식에서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쳐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기부한 마스크가 노인·노숙인·다문화 가정처럼 면역력이 약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뜻깊은 동참이 이어져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에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송해 씨는 대한민국 연예계 최연장 현역으로서 전 국민에게 오랜 시간 행복을 주셨다. 이번 기부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밝히는 온기로 많은 분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마스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노숙인을 비롯해 면역력이 떨어진 이웃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송해 씨는 이번 기부를 포함해 앞으로 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라종역)과 다양한 사회복지 단체에 마스크 1억 장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요양보호사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펀딩을 진행한다.

글 이선희 자료 사랑의열매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엄연히 국가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하는 '전문직'이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요양보호사가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며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 불안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폭언과 폭행은 물론 심지어 성희롱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남을 보살피느라 정작 아픈 자신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보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모금 기간 2020년 11월 부터

목표 금액 300만 원

모금 사용 예정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https://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중앙회



청유 예재두 박사, 정년퇴직하며 나눔리더 가입

지난 9월 14일 광화문 사랑의열매에서 청유 예재두 박사의 나눔리더 가입식이 있었다. 청유 예재두 박사는 26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주OECD 대표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자치부 등을 거치며 평생 공직에서 헌신하고, 대전 및 과천청사관리소장을 마지막으로 2009년 정년퇴직했다. 예재두 박사는 행정고시부터 해외 유학, 공무원으로서 훈장 포상 및 박사학위 취득까지 늘 자신을 위해 달려온 삶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지인의 아내 소사이더티 가입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부러움을 느끼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관심은 바로 나눔리더 가입

으로 이어졌다.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예재두 박사는 “객관적인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부자는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인용하면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자신도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자신의 기부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며,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가입식에는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리더에 가입해준 예재두 박사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중앙회



19년째 나눔 실천한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개그맨 황기순 씨가 홀로 자전거 전국 중주에 나서며 19년 연속 나눔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난 9월 28일에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 그는 "사랑더하기를 힘이 닿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기순씨는 올해도 지인들과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소상공인 상점가 특별 방역 지원

사랑의열매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웅)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 상점가 내 매장에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밀집 상가와 영세 골목 상권에 위치한 매장 2,000곳에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집중 방역을 한다. 매장 내·외부 분무 및 표면 소독을 실시하며, 방역을 완료한 매장에는 방역 알람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 지원은 SK하이닉스에서 기부한 2억 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특별 모금으로 이루어진다.

서울



샤이니故 종현 재단법인 빛이나, 바자회 수익금 기부

가수 샤이니 멤버 故종현의 가족이 설립한 재단법인 빛이나에서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료 아티스트들의 애장품과 빛이나 신상품을 경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바자회에는 동방신기 유노윤호, 최강창민, 슈퍼주니어 이특, 김희철, 예성, 샤이니 온유, 故종현의 가족, Key, 민호, 태민, EXO 수호, 레드벨벳 아이린, 웬디, 슬기, 조이, 예리, WayV 쿤이 애장품을 전달했다.



대한제과협회 노원·도봉구지회, 착한가게 단체 가입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노원·도봉구지회 소속 제과점이 서울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로 단체 가입했다. 두르몽드(대표 김근보), 민부곤 과자점(대표 민부곤), 이대균과자점(대표 이대균), 델리명과(대표 이병욱), 본프랑스(대표 정진철), 상도르과자점(대표 이한웅), 빵이야기(대표 위신환), 곰돌이빵집(대표 김남형) 등 여덟 곳의 제과점이 가입했으며,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기로 약정했다.

부산



아너3명 동시가입, 부산아너 200호 돌파

지난 9월 28일 부산 사랑의열매에 3명의 아너가 동시에 가입했다. (주)케이시종합건설 정철수 대표이사가 199호, (주)현대피팅 하맹성 회장이 200호, (주)오션엔텍 송해화 대표이사가 201호로 가입하며, 지난 2016년 100호 회원을 맞이한 지 4년 만에 200호를 돌파했다. 이번 가입으로 따뜻한 나눔 도시 부산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너 회원을 보유한 지역이 됐다.



저소득 가정에 추석 명절 특별 생계비 전달

부산 사랑의열매가 추석 명절맞이 특별 생계비 6억여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산 시민의 정성으로 조성한 성금으로 부산 지역 16개 구(군) 및 부산동구쪽방상담소와 부산진구쪽방상담소의 추천을 통해 지역 내 소외 계층 1만 2,002세대에 지원했다. 한편, 추석을 맞아 BNK금융그룹이 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억 2,000만여 원, 한진중공업 임직원이 1,9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부산 지역 기업들이 온정의손길을 보내왔다.

대구



대구신화수산(주), 청소년 희망 장학금 전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시장 도매인 대구신화수산(주)(대표 고중근)이 대구 지역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3,0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대구신화수산(주)은 지난해에도 대구 지역 저소득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꾸준히 수산물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웃과 나누는 수산물은 총 3억 7,000만여 원에 달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성금 기탁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재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의 저소득층과 위기 가정에 긴급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혜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 경로 식당 칸막이 설치 지원

지난 9월 23일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이사장 카허 카젼)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지원금 1억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지원금은 향후 운영 재개에 대비해 인천시 내 경로 식당(무류 급식소) 42개소에 1,089개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 카허 카젼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칸막이 설치를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나눔명문기업 14호로 가입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지방 공기업 최초로 나눔명문기업 14호로 가입했다. 그동안 인천도시공사는 도시 재생 및 주거 복지 등 고유한 업무와 연계된 사업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외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함께하는 도시,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으며, 기부금은 원도심 재생 사업, 폭염 대비 소외 계층 지원 사업,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경사로 개선 사업비 후원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지역사회 보행 약자들을 돕기 위한 경사로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후원금은 남구 관내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편의 시설 실태 조사 후 11월에 현장 설치가 진행된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보행 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해양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성금 기부

(주)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가 코로나19와 태풍 및 수해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광주시 취약 계층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김형순 사장은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에너지 기업으로서 생활 속 필요한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도 함께 공급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



(주)바이오노트,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실천

(주)바이오노트(대표이사 조병기, 김선애)가 1억 5,000만 원을 기탁하며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돌봄·건강·고용 등 4개 영역의 사회복지 공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병기 대표이사는 “우리 이웃들의 삶에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경기북부



양주시·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합 모금 협약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양주시,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포스트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감동 양주 연합 모금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모금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하고,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금 활동 홍보 지원과 연합 모금 참여 기관의 배분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연합 모금 파트너 기관 공모·선정, 모금 컨설팅, 매칭금 지원을 수행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사회 공헌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10월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활동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나눔 참여로 조성한 기금은 경기도 내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월드스트리트 푸드존, 동두천시 착한일터 80호 탄생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월드스트리트 푸드존의 푸드존 대표들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착한일터 80호로 가입했다. 이들의 성금은 독거노인 반찬 지원, 이동식 즉시업,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등 동두천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동두천시는 시청 공무원 550여 명이 착한일터에 동참하고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착한일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원



춘천 자스민, 사랑의도시락 배달

중국요리 전문점 춘천 자스민(대표 박선남)은 지난 9월부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생긴 이웃에 주 2회 사랑의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자스민에서 중국요리와 밑반찬 등을 만들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 계층 아동과 노인 15가구에 박선남 대표가 직접 전달한다. 박선남 대표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도시락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변의 이웃과 정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주)단정바이오, 핸드크림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지난 10월 5일 (주)단정바이오(대표 정의수)는 500만 원 상당의 '시노디아 강원 감자 핸드크림' 1,000개를 강원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한 핸드크림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강원 지역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 강원 감자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정의수 대표는 “지역 유기농 작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와 협업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핸드크림은 원주시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했다.

충북



한국소비자원, 소외계층 지원 성금 전달

지난 10월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음성군 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11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전달한 기부금은 한국소비자원의 임원들이 성과급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한 것이다. 이희숙 원장은 “음성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공공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에라토, 도내 저소득가구에 사랑의그릇 기탁

도자기 토털 서비스 전문 기업 (주)에라토(대표이사 명수호)가 지난 10월 16일 2,800만 원 상당 식기류 6,741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주)에라토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억 4,700만여 원 상당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해왔다. 이번에 기탁한 그릇은 도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했다.

충남



독립기념관 노조·임직원, 한마음으로 성금 기탁

지난 9월 25일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 노동조합 및 임직원 일동이 성금 1,027만 원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평소 적극적인 지역 방역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온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모금 활동을 벌였다. 성금은 천안시 달빛사랑봉사단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피해 가정과 저소득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주)구공, 아산시에 성금 1,010만 원 쾌척

휴대폰 판매점과 카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구공(이정원 대표)이 지난 10월 6일 성금 1,010만 원을 아산시청에 전달했다. 이정원 대표는 충남 아너 회원으로, 모교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성금은 카페 '이내' 개업을 기념하고자 기탁했으며, 아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군산시 기부 천사등극

건축설계 및 감리 분야 전문 회사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길환)가 지난 10월 6일 도움이 필요한 군산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는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눔명문기업으로, 지난 4월과 9월에 이어 1,004만 원을 기부했다. 이길환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달한 성금은 군산시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JB어르신 문화센터 제4호 개방

지난 10월 20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주시 금암노인복지관에 JB어르신 문화센터 4호를 개방했다. JB어르신 문화센터는 노후화된 노인복지관의 환경을 개선하는 전북은행의 사회 공헌 사업이다. 평생 학습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시니어 연령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임재원 전북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다"고 밝혔다.

전남



(주)한빛산업개발, 1,200만 원 상당 위로품 벽지 전달

지난 9월 22일 (주)한빛산업개발(대표 이상호)이 저소득 가구와 수재민을 위해 1,200만 원 상당의 고급 벽지 520롤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주)한빛산업개발은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 사업체를 중심으로 의장 공사, 바닥재, 벽지 공사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상호 대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림산업개발(주), 추석맞이 명절 지원금 기탁

미림산업개발(주)(대표 허영호)이 지난 9월 25일 광주시 취약 계층을 위해 추석맞이 지원금 3,0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허영호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이웃이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에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원됐고, 앞서 허영호 대표는 광주 북구지역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경북



명절 지원금과 물품 키트비 6억 7,000만 원 지원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21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내 9,000세대에 6억 3,000만 원의 명절 지원금을 전달하고, 배분 기관 2개소에는 4,000만 원의 물품 키트 사업비를 지원했다. 물품 키트는 햅쌀, 라면, 부침가루, 식용유 등의 먹거리와 방역 물품으로 구성해 금오종합복지관에서 300세트,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00세트를 해당 지역 저소득 계층에 전달했다.



경상북도청, ‘클린 세탁기 나눔 행사’ 진행

지난 9월 22일 경상북도청에서 저소득 가정에 세탁기 1,000대를 전달하는 ‘코로나19 극복, 클린 세탁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신현수 회장은 전국리사이클센터로부터 2017년 250대, 2019년 1,100대의 세탁기를 기증받아 도내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태풍피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으며, 이번에 기증받는 세탁기 1,000대도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에 골고루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



故 유분자·송은혜 모녀, 경남 나눔리더 가입

고등학교 교사 송은혜 씨가 지난 10월 12일 고인이 된 어머니 유분자 씨와 함께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송은혜 씨는 어머니의 사망 3주기를 맞아 평소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고, 베풀어주신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경남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송은혜 씨는 “3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진다”며, “어머니께서 주신 크나큰 사랑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희망 2020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

지난 9월 16일 경상남도청과 경남 사랑의열매는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업·단체·개인 유공자에 ‘희망 2020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꾸준한 기부로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21개 기업과 단체, 개인 기부자 25명 및 성금 모금에 기여한 시군 공무원 16명에게 경남도지사 표창과 모금회장 상을 수여했고,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힘쓴 6개 시군에도 표창을 수여했다.

제주



제주지역 곳곳에 '식품나눔마켓'이 찾아가합니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역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읍·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년간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찾아가는 식품나눔마켓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찾아가는 식품나눔마켓’은 고정식 푸드마켓과는 달리 차량 내부에 식품을 진열한 후 읍·면 지역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식품을 전달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한다.



김순희 제주 아너, 제41회 김만덕상 수상

김순희 제주 86호 아너 소사이어티((주)오현 대표)는 지난 10월 18일 제41회 김만덕상 경제인 부문을 수상했다. (주)오현은 전체 근로자 125명 중 여성 근로자 107명, 60세 이상 노인 82명으로 취약 계층 고용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아들 송현울씨와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86호, 98호로 가입하며 제주 최초 '모자 아너'로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모범이 되고 있다.

세종



(주)현대주류상사 이종철 대표, 세종시 아너 가입

지난 10월 15일 (주)현대주류상사 이종철 대표가 1억 원 기부를 약정 하면서 세종시 19번째 아너 소사이어티가 되었다. (주)현대주류상사는 1994년 창립한 이후 1,000곳에 이르는 도매사와의 효율적 소통과 협력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종철 대표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부를 활발히 이어나가야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아너 가입으로 세종시 관내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SK트리켄, 보행 보조기 40대 비대면 기부

SK트리켄이 지난 10월 11일 거동이 불편한 지역 노인을 위해 500만 원 상당 보행 보조기(실버카) 40대를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지난 2019년 혈압 체크기와 부식물, 생필품, 실버카 40대를 지역 경로당에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 SK트리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사회 공헌을 이어나가겠다”며 기부 의지를 밝혔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서울
298호



이나라

"나눔은 마음속 텃밭에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한 '행복 씨앗'입니다."

서울
299호



김현민 (주)토드비 대표

"나눔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서울
300호



김지선 방송인

"나눔은 향수처럼 널리 퍼지는 것."

부산
199호



정철수 (주)케이시종합건설 대표이사

"힘든 이웃들이 코로나19와 함께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작은 나눔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200호



하맹성 (주)현대피팅 회장

"나눔과 친절은 베풀수록 행복이 쌓인다."

부산
201호



송해화 (주)오션엔텍 대표이사

"부산의 나눔문화를 상징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분들과 함께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에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202호



정진갑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나누고 베풀면서 기부하면 또 채워집니다. 이 작은 기부금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
164호



범광сім 운곡사 주지

"저의 작은 기부마중물이 되어 희성과 보시의 따뜻한 마음이 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광주
113호



정대준 (주)국보 대표

"2020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광주
114호



박계하 단청 등에두와르 대표

"저의 아너 가입이 나눔의 불씨가 되어 광주 지역의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열심히 나눔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겠습니다."

울산
95호



배상원 천국참숯가마·히어로스파 대표

"작은 나눔의 씨앗이 희망으로 자라 사랑과 온기로 널리 퍼지길... 나눔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전남
101호



유근훈 (주)삼태수건설 대표

"유년 시절 함께한 공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가 있을까 고민하다 아너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전남
102호



김중성 새중앙의원 원장

"처음 나눔을 시작했을 때 작은 것부터 나누자는 마음으로 병원 수입금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진군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합니다."

전남
103호



허자은

"먼저 나눔의 길을 걷고 있는 남편을 보여 멋있는 일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눔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 기쁩니다."

세종
19호



이종철 (주)현대주류상사 대표

"기부 문화는 금액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활발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세종시 관내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 나눔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 중앙**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인명영
- 강원** 강릉 임지네코맥집 가족
- 인천** 주원규 강화군청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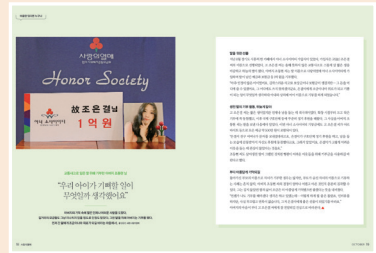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가을이 깊어갑니다. 23일은 절기상 상강이라고요. 인천 모래내시장이 착한가게 시장이라는 걸 알았네요. 재래시장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모처럼 인천으로 나들이 다녀오려 합니다. 사랑의열매의 귀하고 따뜻한 나눔 소식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늘 그렇듯 사랑의열매는 제게 다 잘될 거라며 옆에서 속삭여주는 듯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가을 축제 소식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되세요.

-정명진, 서울시 강남구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사랑의열매〉를 읽다 보면 마치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특히 이번 호에선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에 실린, 교통사고로 잃은 딸 위해 기부한 아버지 조동현님의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정말 찡찡했습니다.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던 딸을 위하고, 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신 아버지 조동현님께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인동원, 인천시 부평구

한창 꾸미기 좋아하고, 여행하기 좋아하는 젊은 세대일 텐데, 패션 그룹 (주)오아이 스튜디오 정예슬 대표는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겠다는 버킷 리스트의 꿈을 완성하게 되었죠. 앞으로 기부뿐 아니라 직접 봉사 현장에 나갈 계획으로, 나눔의 온기 또한 나누고 싶다는 말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현실도 언젠가는 경향이 된다며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따뜻한 응원과 조언처럼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옥남, 서울시 종로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길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마스크(색상 랜덤)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Hey! 가관남 보고판 있는다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도 움직이지 않니까

함께, 세상을 움직인다



나눔으로
FLEX

나눔으로
FLEX

나눔으로
FLEX

나눔으로
FLEX

나눔으로
FLEX

영상이
궁금하다면?



기부상담 080-890-1212 **ARS 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사랑의열매는 공동모금으로 전문성 있는 파트너 기관을 지원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2019년 전국 28,870개 기관 지원)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